

인 권 에 대 한 우 리 의 결 의

복음의 빛으로 현실의 어두움을 조명해야 할 우리 원주교구 사제·수도자들은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한 모임을 갖고(1986. 7. 10) 현치한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권리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에 치참하게 유린되고 있음을 보면서 짙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법을 수호해야 할 당국자들에 오히려 짓밟히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개탄한다.

82년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연루된 학생들이 당한 인권유린의 행위를 법정진술에서 들으면서 오한을 느꼈던 기억이나 그후 민청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에게 가해졌던 고문행위를 다시 기억하는 가운데 최근 나약한 여성 근로자에게 잔인하게 가해진 성고문 행위를 한 예로 보면서 오늘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문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가를 생각할때 짙은 한의 아픔을 느끼게 한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해야 할 교회는 닫혀진 사회안의 어두움을 고발하고 복음과 사랑의 외침을 잠시도 멈추어서는 안된다.

— 고문행위는 진실을 위장시키거나, 참목의 권리마저 찬탈하는 폭력으로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대죄악이다. 헌정권은 출범시 최고통치권자가 국민앞에 기아·무질서·고문으로부터 해방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고문이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으며 고문행위를 한 공직자들을 묵인한다면 헌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국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문행위를 한 공직자들을 즉시 처벌해야 하며 모든 고문을 중단해야 한다.

— 최근 부친 경찰서 수사경찰관에 의해 근로여성에게 가해진 성 고문행위는 인륜도의를 저버린 행위로서 전 국민에게 경각과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임의로 전할수 조차 없는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윤리질서의 도진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이런 만행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 오늘 국민의 눈은 민주화와 개혁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집권세력은 민주화를 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구속된 대학생, 근로자, 농민, 지식인, 정치가들 모두를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이들의 석방없이 민주화는 한낱 위장에 불과하다는 불신과 국민들의 저항감을 부채질할 뿐이다. 집권자들은 고문의 중지와 더불어 양심수들을 석방함으로써 민주화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 민주화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밝힌 김추기경님의 말씀을 지지하며 K·B·S와 모든 언론 매체들은 공정보도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편파보도로 국민을 기만하는 K·B·S 시청료 거부운동은 당연한 권리이며 민주화를 위한 필요조건임을 천명한다.

이상의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밝히며 우리는 교회의 사명에 따라 민족과 사회와 국민을 위해 복음의 외침을 끊임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1986. 7. 15